

# 응급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위한 스마트케어 플랫폼



💡 **기술분류** : 의료기기/헬스케어

💡 **거래유형** : 별도 협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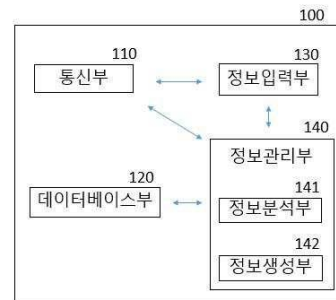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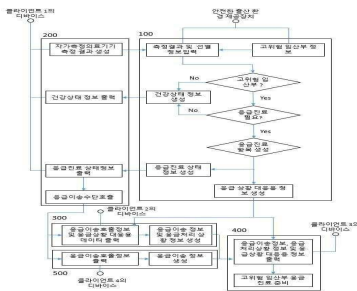
💡 **연구자 정보** : 강원대학교 산부인과 황종윤 교수

💡 **기술가격** : 별도 협의

💡 **기술이전 상담 및 문의** : 한맥국제특허법률사무소/070-4617-2849/허효석 대리/hyostone@ihanmac.com

## 🔍 기술특징

- 분만 취약지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 환경 제공 기술로, 고위험 임산부로 선별되어 관리중인 임산부가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 임산부 전용 응급산모 안전 택시 및 119 구급대를 즉시 이용 가능하도록 하여 대중교통이 취약한 분만취약지의 임산부가 신속히 산부인과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술임



[서비스 제공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데이터 흐름도]

[서비스 제공 장치 개략도]

## 📏 기술완성도



※ TRL 4 : 연구실 규모의 부품 / 시스템 성능평가

## 👉 기술의 차별성

### 기존 기술의 한계점

- 출산율이 극히 낮은 농촌, 산촌, 어촌지역은 산부인과등의 임산부를 위한 인프라 부재



### 개발 기술의 차별성

- 응급상황시 임산부의 이송 및 응급상황 대처 방안
- 자가 건강상태체크를 통한 고위험 임산부 판별
- 의료취약지역의 소아청소년과 등에도 활용 가능

## 활용가능 분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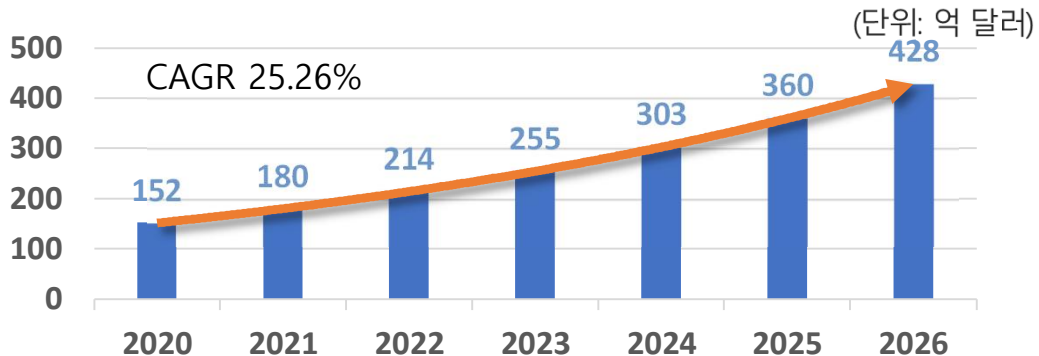
• 원격의료 분야

•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



## 시장동향

- 미국은 넓은 국토와 비싼 의료비, 유럽은 인구 고령화, 중국은 넓은 국토와 부족한 의료인력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료 서비스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추세임
- 또한, 고령화와 의료비 증가, 의료인력 부족 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선진국을 중심으로 헬스케어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이며, 포스트 COVID-19 시대에는 그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됨
- GIA(Global Industry Analysts)에 따르면,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2020년 1,520억 달러(약 182조 원)로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인 4,330억 달러의 35%에 해당하는 규모이며, 이후 연평균 성장률 18.8%로 성장하여 2027년 5,090억달러(약 610조 원)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



[디지털 헬스케어 글로벌 시장 현황 및 전망]

\*출처 : Knowledge Sourcing Intelligence, Wearable Sensors Market - Forecasts from 2022 to 2027)

## 지식재산권 현황

No.	특허명	특허번호 (상태)	연구자	소유기관
1	분만 취약지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 환경을 제공을 위한 응급 산모 관리 서비스 제공방법, 장치, 및 시스템	10-2275150 (등록)	황종윤 외 5인	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
2	분만 취약지 임산부의 임신주기별 고위험 임산부 선별검사 서비스 제공방법, 장치 및 시스템	10-1835471 (등록)	황종윤 외 4인	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
3	분만 취약지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 환경 제공방법, 장치 및 시스템	10-1816538 (등록)	황종윤 외 4인	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